

서양 고전 및 영국문학의 전통 ② 분노를 노래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이타적 유전자

서홍원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가.

고대의 서사시를 읽을 때 첫줄 혹은 첫 단어(들)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초혼은 주제를 알리고, 주제에 대해 '노래'하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알린다.

〈일리아스〉의 주제는 첫 단어인 menin(분노:목적적)이고 menin의 주어 형태는 '메니스(menis)'이다.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은 이 외에도 '콜로스(cholos)', '메가스튀모스(메가스튀모스)' 등 다양한데 '메니스'는 보통 신들의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런 분노를 아킬레우스(Achilleus)가 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인해 수많은 아카이아인들(Achaios:그리스인들)이 고통에 빠지고 수많은 영웅들이 죽는다. 더구나 이 영웅들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남은 주검은 들개와 새의 먹이가 되는데, 고대사회에서 시신이 이렇게 방치되어 동물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아킬레우스의 '파멸적인' 분노가 만들어낸 일인데, 7행에서 그를 "신과 같은(dios:찬란한이라는 의미도 된다)"이라는 형용어로 표현한 것은 그의 분노를 menis로 표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초혼을 마친 시인은 여신에게 물어본다.

Menin aeide thea(메닌 아에데 테아)

"분노를 노래하라 여신이어." 이 세 단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를 노래하기 위해 여신(thea)에게 도움을 청하는 '초혼(invocation)'의 첫 세 단어이다. 여신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제우스(Zeus)와 기억의 신 므네모시네(Mnemosyne) 사이에서 탄생한 아홉 뮤즈(Muse) 중 서사시의 뮤즈 칼리오페(Calliope)일 가능성이 크다.

분노를 노래하라 여신이어,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멸적인 분노를, 아카이아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가져온

이 분노는 수많은 용맹스런 영웅들의 영혼을 하데스로 내려

보내서 그들 본인의 주검을 들개와 모든 맹금의 먹이로

만들었다. 그렇게 제우스의 의지는 완성되고 있었다,

둘이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길을 달리 하면서,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의 왕, 그리고



지오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의 작 '아킬레우스의 분노'. 아킬레우스(가운데)가 아가멤논(왼쪽)을 죽이기 위해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사이에 아테네(오른쪽)가 내려와 그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

그렇다면 이들의 갈등을 초래한 신은 누구인가?

그 신은 아폴론이다. 그가 인간사에 개입하게 된 경우는 이렇다.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와 10년간 전쟁을 했는데 그동안 전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들은 주변의 해안도시들도 약탈했는데, 그중 한 도시에서 아폴론의 사제 크리세스(Chryses)의 딸 크리세이스(Chryseis)

가 전리품으로 끌려온다. 그녀는 아가멤논의 차지가 되고 딸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아버지 크리세스는 냉정하게 쫓겨난다.

그 후에 수많은 그리스 용사들이 원인 모르게 죽기 시작한다. 재난을 맞이한 아킬레우스와 장군들이 그 원인을 예언자 칼카스(Calchas)에게 문의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아킬레우스여,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그대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노(menis), 멀리서 화살을 쏘는 아폴론의 분노입니다."

장군들이 아가멤논을 찾아가서 크리세이스의 반환을 요구하자 아가멤논은 그대가로 아킬레우스로부터 브리세이스(Brisseis)를 빼앗겠다고 한다. '인간의 왕'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투나 노략질의 결과로 얻어지는 전리품을 '게라스(geras)'라고 하는데 크리세이스같은 "불이 아름다운" 여인은 최상의 게라스로 평가되고, 이런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그만큼 전투나 노략질에서 공을 인정받았거나 그 못지않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런 동료들 사이에서의 인정을 '티메(time)'라고 하며 대략 '명예'로 번역된다.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를 차지한 것은 그의 티메의 증명과도 같기에 그녀를 도로 내주는 것은 그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

이다.

문제는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로부터 빼앗으려는 브리세이스도 크리세이스와 똑같이 "불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된다는 점, 즉 브리세이스도 아킬레우스에게는 티메의 증명인 데에 있다.

7행에서 묘사되듯 아가멤논은 "인간의 왕" 즉 왕 중의 왕이고 제우스의 혈통까지 자랑하는,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 수저이다. 반면 아킬레우스는 전쟁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용사로서 "최고"이다. 그런데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를 싸움이나 잘하는 뒷골목 깡패 취급을 하면서 그의 게라스를 빼앗고, 아킬레우스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은수저가 이길 수 없기에.

이로써 아폴론의 분노가 아킬레우스에게 전염된다. 아킬레우스는 바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그가 없는 그리스 진영은 초혼에서 말한 계속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한다. 다이아몬드 수저가 전쟁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아킬레우스의 명예는 이로써 회복된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참혹하다.

이것이 아킬레우스의 첫번째 분노, 메니스의 결과이다. 이 분노는 총 24권의 〈일리아스〉의 1권부터 8권, 정확히 1/3 지점까지 유지된다. 다음 기고에는 나머지 2/3에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첫걸음

기고

김진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해 고된 훈련을 거듭하고, 베테랑 소방관들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며 살아가며 마주칠 수많은 삶의 시련과 갈림길 앞에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학습한다. 공교육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보다 행복한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학습시켜야 한다. 안전사고는 배우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하지 못한 사회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각종 법령 제정을 비롯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같은 각종 안전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소방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행정안전부와 함께 '어린이재난안전훈련' 등을 통한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선 관련 매뉴얼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대책으로 다중집 장소에 대한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강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군중 밀집장소에 대한 안전 수칙 매뉴얼은 전무하며 더욱이 공신력 있는 안전 자료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안전교육 담당하는 체험관 교관들 대부분은 외부 계약직 직원으로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보다 시설 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

또한 안전체험관을 대부분 의례적 관람 정도로 생각하는 의식 수준이다. 앞서 말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서도 안전체험관 대부분이 규모가 작아 효과적인

교육이 어렵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안전체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동영상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전문적인 지진·태풍·화재 등 구체적인 재난체험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체험관이 다수였다.

실제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는 안전교육이 실질적인 '안전훈련'으로 작용해야 한다. 나아가 안전체험시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안전체험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험관 교관을 미국과 일본처럼 퇴직 소방관으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을 영입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교실 안전 점검과 스프링클러 설치 주문, 영광안전체험학습장 운영문제, 안전관련 선제적 대응 노력, 수학여행 안전관리 등을 거론하며 전남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많은 질의를 했다. 더해 안전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학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조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내실화다. 명목상 안전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자체, 교육청의 협심이 필요하다.

한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다. 더 늦기 전에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혁신으로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야 할 때다.

기고 홍성용 농협 전남농촌지원단 차장



공명정대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위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2015년부터 조합장선거가 한 날짜에 맞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당시 조합장 선거업무 담당할 필자의 입장에서 정말 혼돈 그 자체였다.

1988년부터 각 농축협 의 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진행하려 하니 모두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면서 다수의 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본인들이 마치 죄인 취급받는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에 금품선거, 상대 후보자 비방 등 관련 부정적 기사가 연일 오르내리면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진 농축협 조합장선거는 불법이 만연한 부패의 온상처럼 매도됐다.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면 당선이고 얼마는 낙선이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하고, 농축협과 관련된 대내외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농협이 공개적으로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안타까움이 컸다.

2019년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제1회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했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가 늘고, 조합장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방법을 숙지하면서 한층 성숙하게 진행됐다. 다만, 제1회에 이어 2회에서도 조합장선거가 '깜

깜이 선거'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됐다.

현행 위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본인들의 경연철학과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토론회나 후보자 초청대담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제도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앞선 두 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전에 발생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욱 발전하여 성숙한 선거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는 유권자인 농축협 조합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농협을 잘 이끌어가고 성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는 누구이고, 조합원들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후보자는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50년 이상을 지켜왔던 우리의 농협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기대한다. 몇 분 만에 끝나는 투표지만 나의 한 표가 농협과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에는 국민들로부터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